

온누리교회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생명까지도 던진故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는 교회

The Onnuri Weekly

http://news.onnuri.or.kr

• 발행인: 이재훈 • 편집국장: 문창극 • 부장: 김남원 • 기자: 정지은, 조은실 / 140-240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71-106 / 신문사 3215-3199 / 570-7611 서빙고 793-9686 양재 573-9686



새해 첫 해가 쏘았다. 2014년 온누리교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한 해를 소망한다.

2014년 온누리교회 '은혜와 진리' '새롭게 시작하는 30주년' 준비 박차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무엇보다 새롭게 시작하는 30주년을 준비하는 한해가 될 전망이다.

창립 30주년이 되는 2015년을 기점으로 2기 온누리교회는 '새롭게 시작하는 30주년'이라는 더 큰 꿈을

꾼다. 이를 위해 온누리교회는 가장 먼저 기도에 집중하고 있다.

다음달 25일까지 송구영신 40일 새벽기도회가 이어지고, 고난주간 특별심야예배, 마리아행전 등을 통해 기도로 새롭게 시작하는 30주

년을 준비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송구영신 40일 새벽기도회에는 서빙고 기준 하루 평균 1천 5백 여 성도들이 새벽부터 예배당에 나와 교회와 가정,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고 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2014년 온누리교회 표어로 '은혜와 진리'를 선포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자신에게는 진리를, 타인에게는 은혜를 베풀

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올해는 오늘(5일)과 다음 주일(12일) 새해 첫 헌금을 선교헌금으로 봉헌하는 '2014 선교헌금 작성' 행사를 시작으로 대청 리더십 수련회, 'Passion' 전국청소년 집회, 목회사관학교 등이 이어진다.

고난주간에는 특별심야예배를 드리고, 러브소나타는 시모노세키에

서 울려 퍼진다. 여성들의 기도행전 '마리아행전'도 어김없이 이어진다. 7~8월에는 열방에서 여름 아웃리치가 진행되고, 8월2일에는 하용조 목사 3주기 추모행사가 열린다.

하반기에는 10월 온누리 부흥축제, 11월 러브소나타 오비히로, 맞춤형 도집회 등이 열릴 예정이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오늘, 1차 선교헌금 작성

CMS, 헌금봉투, 이체 중보기도와 재능기부도

선교헌금 작성행사가 오늘(5일)과 다음 주일(12일)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진행된다.

헌금 방식은 CMS, 헌금봉투, 직접이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중보기도후원과 재능기부에도 참여할 수 있다.

올해 드리는 선교헌금은 선교사후원 및 파송(90여명 신규파송), 중장기 선교전략 수립 위한 연구소 설

립, 선교포럼 개최, 선교리더십 발굴 및 교육, 인터넷 신학교 과정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들의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해 선교사 복지도 강화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11면>

지난 주일부터 배포된 선교헌금 작성안내 책자에는 7개 선교지역과 선교사, 사역에 대해 소개되어 있다. 문의: 02-3215-3209(선교헌금)

본인은 재능복음화를 위한 선교사역을 위해 기도 혹은 재능기부로 봉헌할 것을 작성합니다. 성명: _____ 연락처: _____ 소속교회: _____		CMS 작성서 CMS란? 온라인 헌금 시스템으로 헌금 내역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헌금 내역에 따라 자동으로 헌금 내역으로 전달됩니다. 2. 헌금 방법은 2가지로, 봉투 또는 계좌로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헌금 내역에 따라 자동으로 헌금 내역으로 전달됩니다. 헌금 내역에 따라 자동으로 헌금 내역으로 전달됩니다. 3. 모든 헌금 내역은 헌금 내역으로 전달됩니다.
1. 중보기도를 할 때는 지역과 선교사역을 기재해주세요. 2014년 선교헌금 작성기간에 작성할 것을 작성합니다. 1. 지역 ☐ 동아시아 ☐ 남아시아 ☐ 유라시아 ☐ 중동 ☐ 아프리카 ☐ 미주-오세아니아 ☐ 국내본부 2. 선교지역 선교지역 2. 선교지역: 소역을 할 지역으로 기재해주세요. 선교지역이 수인 형식을 입력해주세요. ☐ 이태일 ☐ 무관함 3. 재능기부 ☐ 재능기부 ☐ 재능기부 ☐ 재능기부 ☐ 재능기부 ☐ 재능기부 ☐ 재능기부		CMS 작성서 070-4949-7882 (온누리선교사 후원사역부)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신년 캠페인

온누리 주차, 달라져야한다

교회 주변 주민들과 오랜 논쟁을 거듭해 온 주차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다다랐다. 이제는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되어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만 한다. 주말마다 교회 주변 주민들이 겪는 고충이 엄청나다. 교회가 생긴 이후 지금까지 이어졌으니 주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것이 당연하다. 온누리 주차 이제는 달라져야한다. 온누리교회는 주민 대표들과 구청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교회

앞 일방순환로 개설 >신동아아파트 경내 출입 자체 >주차봉사 요원 증원(필요시 전문업체 활용)>서빙고역에서 교회 오는 보행로 설치 >서빙고로 연결 위한 철도건설목 또는 지하도로 개설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하고,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실제적 논의를 하고 있다. 대안은 대중교통이용이다. 성도 모두가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리라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체험하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인 동시에 참된 사람입니다.

눅 2:41~52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는 예수님이 누구 인가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살아있는 사람의 인격을 기초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중심은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역사 속에 있었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영성 신학자 리처드 포스터는 <훈련의 기쁨>이라는 책에서 피상성을 우리 시대의 저주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지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깊은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아는 깊이 있는 성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예식에 참여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거나, 성경지식을 알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피상적인 생각입니다. 예배당에 예수교라는 간판만 붙이면 예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지를 깊이 있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참된 하나님인 동시에 참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나야 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피상적인 지식이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을 양육했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그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참되게 알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열두세가 되기까지 양육하면서 다른 자녀들과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오셨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가 말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49절)

예수님 말씀은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요셉과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피상적으로만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하신 말씀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이 되면 빠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기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끝났다는 것은 유월절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유월절은 정월 첫째 달 14일 저녁입니다. 그 다음날부터는 누룩 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는 무교절입니다. 그런데 절기가 붙어있고 무교절이 유월절의 연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월절은 무교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없어진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는 절기가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열두 살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13세는 율법의 아들로 성인이 되는 해였습니다. 예수님은 한두 해 전부터 유월절 절기에 참석했습니다. 예수님이 열두 살 되던 해에 절기에 참석한 걸로 번역된 것을 볼 때 몇 해 전부터 유월절 절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가족들이 함께 유월절 절기에 참석하고 나서 돌아가던 중에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것을 하루가 지나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일이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대화하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무관심한 건 아닌가요 하는 의심이 듭니다.

당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국가적인 일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움직였습니다. 집에서 출발할 때는 가족들 뿐이었지만 길을 나서면서 친척들을 만나고, 가는 여정에 다른 마을에 사는 친족들도 만났

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움직였습니다. 특히 친족끼리는 공동체를 이뤄서 노래를 부르며 성전으로 갔습니다. 한 가문 전체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딘가 있겠지’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성전 뜰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들은 하루 만에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고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삼일을 헤맸습니다. 하룻길을 가서 발견했는데 왜 삼일을 찾아 헤맸을까요. 주변을 탐색하면서 가다 보니 삼일이 걸린 것입니다. 그만큼 요셉과 마리아가 당황했습니다.

문제는 열두 살이면 분명 인지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자신의 거취를 말할 수 있었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뜰에 있는 것을 보면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 있겠다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하려고 했는데 기회를 얻지 못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자신은 예루살렘 성전에 남겠다고 전하지 않고 요셉과 마리아가 떠나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고자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삼일 만에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은 성전 뜰에 계시고 예루살렘의 율법학자들 선생님들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동일한 인성을 가진 예수님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성전 뜰에서 예수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그가 깨닫고 대답하는 것에 몹시 감탄했습니다”(46~47절).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율법학자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처럼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교훈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12세에 맞는 일을 하셨습니다. 보통 열두 살의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어른들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어른들에게 질문하면서 학습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에 관한 지식이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진 분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만 빼놓고 우리와 동일하게 사셨습니다. 그 한 가지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학습과정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학습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한 순간의 기적을 통해 모든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학자에게 율법을 듣고 묻고 깨닫는 과정 속에 예수님은 틀림없이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곤고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회당에서도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랍비여 율법에 이렇게 되었는데 무슨 뜻입니까?’ 아마 예수님은 선생님이 모르는 것만 질문하는 학생이었을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듣는 태도에 감동하고, 몇 가지 질문에 대답 하는 것을 보고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이 감탄하며 예수님과 대화했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 이 과정을 가르쳐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믿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이 사람이셨다는 것을 더욱 믿기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가이언설’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처럼 잠시 십자가에서 고난 받았을 뿐이지 진짜 사람은 아니었다고 가르치는 이단

도 있습니다. 당시는 예수님이 사람이었다고 믿기 어려웠었던 시대였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사람이었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을까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이었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위대한 사람이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지식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이었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시 사람들의 고민을 해보면 균형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고 성장한 동시에 하나님이셨던 그분의 신비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학자들과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고 나서 나무라듯 이야기합니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른다’”(48절).

잃어버렸던 자녀를 찾았을 때 모든 부모가 하는 말입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들은 부모로서 열두 살 예수님을 나무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도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며 키운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아들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율법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하는 것을 철없는 행동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따끔하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예수가 말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49절).

이 말을 들은 요셉과 마리아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기대한 대답은 인간적인 대답이었습니다. 부모가 나무랄 때 자녀는 부모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 대답을

부모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삼일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긴장하고 떨면서 찾았는데 왜 찾았냐고 하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 대답이 더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인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깨우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지적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라는 말은 요셉과 마리아의 망각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당신들의 자녀

집’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사귀를 나누고 계신 분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원문에 충실한 번역으로 읽으면 ‘내가 내 아버지의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모르셨습니까?’ 입니다. 집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영어로 ‘In my fathers’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집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냐면 보통 ‘누구의’ 라는 소유격이 들어가면 당시에는 집을 의미했기 때문에 집이라는 단어를 넣은 것입니다. king james 번역에서는 ‘busines’로 번역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줄 알지 못했습니까?’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아버지의 집’이라는 번역이 가능하고, ‘아버지의 일’이라는 번역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당

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에 나타난 아버지의 뜻과 일을 자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학습과정을 통해서 분명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거나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깁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사명을 행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마땅히 해야 된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반드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땅히 당신께서 할 일을 미루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그리고 나서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 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51-52절).

예수님은 다시 나사렛으로 부모님과 함께 돌아와 목수 일을 했고 육신의 아버지의 집에 거했습니다. 이 놀라운 균형을 보십시오. 참된 하나님 아버지와와 관계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와 관계도 조화를 이뤘습니다.

예수님은 네 가지 영역에서 성장을 이뤘습니다. 첫째, 지혜가 자랐다는 정신적인 성장입니다. 둘째, 키가 자랐다는 것은 육체적 성장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영적 성장입니다. 넷째, 사람들로 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사회적 성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네 가지 영역에서 온전한 성장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사람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훌륭한 종교 지도자로 알고 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집에서 아버지의 일을 행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 분명히 알고 체험하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인 동시에 참된 사람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일러스트 박정일



로 찾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마음에 품었지만 육신의 정이 앞서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렸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를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도구로 자녀를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종교 창시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이 한마디를 통해 예수님의 정체성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둘째,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마땅히 있어야 하는 줄 알지 못했습니까?’ 여기서 ‘내 아버지의

시 성전은 아버지의 임재가 있고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제사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존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제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무너뜨리지 않고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아래 나셨고, 율법을 배우셨고,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그 누구도 지키지 못한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습니다.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간으로 오셔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기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또 ‘내 아버지의 일’이라고 할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요셉과 마리아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지식으로만 생각했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

12월 30일

시련의 때에 임하는 은혜

룻기 2:8-23

룻기는 구약의 사사시대가 배경입니다.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에는 경제적으로도 꼭 흉년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극심한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이주였습니다. 모압 땅은 이스라엘과 역사적으로 많은 원한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엄청난 결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압 땅에서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가정에 생각하지 못했던 시련이 닥칩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까지 죽는 것입니다. 이제 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과 달리 당시 고대 근동은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여성의 이름으로는 어떤 법적, 경제적 활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겪는 사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모압 며느리들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룻은 포기하지 않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어쩌면 나오미는 혼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으면 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굳이 나오미를 따라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사람을 데려가심으로 주신 시련은 동일하게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련은 우리의 꿈은 깨뜨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꿈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룻을 통해 나에게 고통스럽게 다가왔던 하나님의 손길은 아주 감미롭고 은혜로운 손길로 바뀌었습니다.

룻의 이야기에는 당시 사회적 배경이 있습니다.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고엘’, 영어로는 ‘redeemer(구속자)’, 우리말로로는 ‘기업 무를 자’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어떤 여인의 남편이 먼저 죽게 되면 죽은 남편의 가장 가까운 형제, 친척 중에서 순서에 따라 그 여인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죽은 남편의 자녀가 되

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구속자를 만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은 보아스가 룻을 보고 자비를 베풀어 주는 내용입니다. 이런 걸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다른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합니다.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보아스의 인격을 보면 그는 한 여인으로서 룻을 대했다기 보다는 그는 기본적으로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9-10절을 보면 보아스가 율법을 실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아스는 룻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11-12절). ‘하나님의 날개’라는 단어를 보면 보아스의 신앙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편 곳곳에서 하나님의 날개가 등장합니다(시 57:1, 91:4). 후에 나오미가 시킨대로 보아스의 발 아래 눕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때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룻 3:9). 여기서 ‘옷자락’과 ‘날개’는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당

신의 날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날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결국 보아스가 룻과 결혼함으로써 룻과 나오미를 책임지는 기업 무를 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 사이에서 오벧이 태어나고, 오벧을 통해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를 통해 다윗이 태어난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보여줍니까? 한 평범했던 가정에 세 남자가 죽는 시련이 왜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해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로 한 모압 여인을 들이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모든 민족의 구원자가 되시는 다윗의 후손을 준비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잘먹고 잘사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때로는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통해 영원한 나라에 기억되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사는 것을 은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련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송구영신 40일 새벽기도회

amazing grace

이재훈 목사



12월 31일

실패의 늪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은혜

요한복음 21:1-14

우리의 과거는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과거로부터 새롭게 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까? 그 은혜가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게는 오래전부터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셨을까?” 사형을 언도했던 빌라도, 산헤드린 공회원들,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복수하셨다면 신이 나서 설교를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러했다면 우리 마음은 통쾌했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영광스럽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복수하는데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특별히 실패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중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던 것은 그가 수제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제자들 중에 가장 큰 실패를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을

과신했습니다. 사실 그것이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삶을 돌아보면 베드로는 언제나 같은 면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포기하고 과거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다른 제자들도 동참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죄송함, 자괴감,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이 자신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가 베드로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 밤 한 마라도 잡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겠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빈 그물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눅 5장). 베드로

는 기분이 이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때에 호수 저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얘들아, 물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 편에 그물을 던져라.”

빈그물은 과거의 실패를 추억하게 만드는 장치였습니다. 예수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심으로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그 때 요한이 주님을 알아봅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걸음을 두른 후 물에 뛰어듭니다.

예수님은 숯불 위에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숯불’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숯불’이라는 단어가 세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으라고 할 때(눅 12:20)입니다. 베드로에게 숯불은 실패의 현장을 생각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배신의 숯불이었지만 예수님은 지금 사랑의

숯불을 피우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라는 로마서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 세 번 질문하셨을까요? 세 번 부인한 베드로의 고백을 사랑의 고백으로 씻어주심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를 추적하시고 찾아오셔서 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실패의 늪에서 베드로를 건지셔서 부활의 증인 삼으신 주님께서 한 해 가운데 어떤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지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2014년 1월 1일 / 신년메시지



이재훈 목사

하나님께서 2014년 은누리교회에 주신 표어는 ‘은혜와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란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이 볼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두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14절).

예수님을 소개하는 많은 단어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라고 소개합니다. ‘은혜’ 그리고 ‘진리’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 50%, 진리 50%로 충만한 분이 아니라 은혜 100%, 진리 100%로 충만한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새는 두 날개가 있어야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DNA도 이중나선형 구조로 되어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지탱해 줍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DNA요, 날개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과거는 감사, 미래는 기대

그럼 어떻게 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올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 선행, 헌신으로도 갚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다 갚으라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또 다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불순종했습니다(신 1:30-32).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래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세월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미래에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더욱 더 진리로 거룩해져야 합니다(요 17:17, 19). 요즘 가장 잊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진리’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절대 진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진리라고 믿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배타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1+1=2, 답이 하나이듯 진리는 배타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 때 진리 안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요 17:17). 세상이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생각입니다. 어린아이가 위험을 분별하지 못하듯이 우리 신앙이 어릴 때는 위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진리안에 있을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단지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된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

다.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진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진리 없는 은혜를 주장하면 그 은혜는 값싼 은혜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진리를 다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진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은혜없는 진리를 추구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죄인들이라고 분류한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금지해놓은 영역을 넘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에게 용서의

요한복음 1:14-18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영혼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세상 속에 비추어야 될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은혜의 통로되는 한 해 되어야

우리가 은혜를 축소시키거나 제외시키면 이 세상에는 구원의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진리를 축소시키거나 제외시키면 이 세상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없는 진리는 사람들은 언제나 짓밟아 버립니다. 진



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상에 베푸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거룩하라”는 명령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한결 같이 주님의 은혜를 실천하고, 사랑을 베풀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을 돌보고, 이 땅에 거하는 외국인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로 거룩해지는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 균형이 중요

셋째, 은혜와 진리가 균형 있게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전혀 충돌하지 않았습니. 그런데 죄가 충만한 우리들은 은혜와 진리가 언제나 충돌합니다. 은혜를 추구하다보면 진리를 버리게 되고, 진리를 추구하다보면 은혜를 버리게 됩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도 진리 없는 은혜를 주장하거나 정반대로 은혜없는 진리를 주장하기 때문인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위해 진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에 합당하지 못한 인간을 대신해서 진리를 성취하셨습니

다.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한번은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은혜 없는 진리를 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은혜와 진리로 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 매우 중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허락없이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율법대로 “그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다면 로마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그 여인을 그냥 풀어주라”고 했다면 유대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수도 저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요 8:7). 이 말씀은 봐주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눈 감아 주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일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예수님은 진리 없는 은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너희가 진정 진리를 행하려면 자기 자신도 포함시키는 진리를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양심에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을 때 예수님은 “나도 너를

리를 진리답지 못하게 합니다. 진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합니다. 반면 진리 없는 은혜는 사람들을 속이고 은혜를 은혜답지 못하게 합니다. 은혜 없는 진리는 정죄만 할 뿐 구원하지 못하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하고, 진리 없는 은혜는 거짓으로 속이는 관용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2014년은 은누리교회가 ‘은혜와 진리’라는 표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진리를 행하되 그 진리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 긍휼, 놀라우신 은총을 이 세상 속에 베푸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사회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어려운 이웃들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 그러므로 진리를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를 행한다는 것, 그것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 설 때 죄는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앞에 설 때 죄인은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는 십자가로 처리하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월 2일

약한데서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

고린도후서 12:1~10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자서전과 같은 책입니다. 바울은 이 책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서 많은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23-27에는 바울이 받은 고난의 목록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끔찍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이토록 많은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엄청난 육체적인 고난과 시련 앞에서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약자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위대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사도권을 위협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여러 번 간증합니다. 편지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은’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에게도 그를 연약하게 만들 수 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7절). 이 가시가

무엇인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안질, 간질, 위장병, 아니면 어떤 영적인 유혹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간에 성경은 ‘육체의 가시’라고 하니 ‘육체의 질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해결되지 않는 육체의 질병을 위해 하나님께 세 번 간구했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9절)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분상으로도 실력으로도 그는 최고의 능력자였습니다. 하나님도 그의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엄청나게 연약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7절)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 자신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었다고 말합니다(고후 12:1-6). ‘셋째 하늘’은 천국입니다. 바울은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14년동안 한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자랑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감히 인간의 언어로 천국을 묘사한다는 것 자체가 천국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사도 바울은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 하리라”(고후 12:5)고 합니다. 우리가 강자와 약자의 패러다임속에 살아가지 않고, 스스로를 강자라 여기며 교만하게 여기거나 스스로를 약자라 생각하며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길은 내 약함을 주님앞에 올려 드리며 약함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이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는 강자도 아니고 약자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약한데서 강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강해졌다고 해서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만할 수도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자라고 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연약한데서 온전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 건강, 재정, 기타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를 온전하고 능력있게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가운데 머무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 지는 역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언제나 “나는 연약한 자이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해졌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고후 12:9-10)

송구영신 40일 새벽기도회

amazing grace



1월 3일

버림받은 영혼을 품으시는 은혜

사무엘하 9:1~13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은총’이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단어는 인애, 은혜, 친절, 자비, 사랑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헤세드는 “나에게 되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은혜”입니다. 깊이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아도 계속 베푸는 은혜입니다. 내 사랑을 배신하고 거절해도 계속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헤세드를 경험했습니다. 육신의 본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대상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므비보셋이었습니다. 므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가 다섯 살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을 잃고, 자신은 유모가 도망가다가 떨어뜨려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전 정권의 왕족이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지역은 ‘로드발’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로’는 영어로 ‘아니다’라는 뜻이고 ‘드발’은 ‘목초지’라는 뜻입니다. 즉, 그는 황무지에서 살았습니다. 므비보셋은 숨어살

아야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된 것은 자신의 잘못도 아니고, 자신의 뜻도 아니었지만 그는 그냥 그렇게 숨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다윗 왕에게 나아가는 므비보셋의 발걸음은 마치 사형장에 끌려 나가는 사형수처럼 무거웠을 것입니다. 다윗 왕 앞에서 므비보셋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그의 이름을 부르자 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므비보셋에게 두 가지 은혜를 베풀니다(7절). 첫째, “사울에게 속했던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므비보셋에게 일정한 생활비를 지급해 주는 것도 말할 수 없는 은혜인데, 사울에게 속했던 땅을 준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에게 속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므비보셋이 왕이 됐다면 누렸을 것들을 돌려주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둘째, “나는 항상 나의 식탁에서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은혜는 항상 이처럼 극대화됩니다. 최소한을 베풀고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베푼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완벽한 은혜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러 면에서 므비보셋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첫째, 우리는 므비보셋처럼 모두 축복 속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므비보셋이 왕궁에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만물의 상속자로 태어났습니다. 둘째, 므비보셋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지만 버림받고 상처를 입고 장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에덴동산 밖에서 태어난 사람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영혼, 상처 입은 영혼으로 살아갑니다. 셋째, 우리는 모두 므비보셋처럼 숨어 사는 인생을 삽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도 피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넷째, 므비보셋은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에 근거하여 은혜를 입었습니다(7절).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은총, 십자가의 약속, 새로운 언약에 기초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섯째, 므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와서 받은 은혜는 물질적인 보상만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보장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식탁의 교제를 매일 나눌 수 있는 은총을 주셨습니다(시 23:5).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날마다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므비보셋이 누렸던 은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다윗은 므비보셋을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에게만은 만물의 상속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재산을 므비보셋에게 되돌려 준 것처럼 하나님은 만물의 상속자로서 권리를 다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거절감, 버림받은 상처, 마음의 고통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왕의 식탁에 날마다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월 4일

“사랑하는 딸아...”



이지선 자매

저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2000년에 저는 사고를 만났습니다. 학교와 집이 떨어져서 오펜차를 타고 집으로 가곤 했는데, 그날도 그렇게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음주운전을 하시던 분이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가다가 저의 차를 들이받았고 그렇게 7중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여기저기 튕기다가 불이 나기 시작했고, 저는 정신을 잃었는데, 먼저 정신을 차린 오펜차가 저를 꺼냈을 때는 이미 제 상반신에 불이 붙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만난 사고

저는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신에 55%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몸의 절반 이상의 피부가 불에 타서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피부 대신 붕대를 감고, 산소호흡기를 달고, 폐에 찬 유독가스를 빼기 위한 튜브를 옆구리에 꽂고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가망이 없는 환자였기 때문에 간호사들만 앞 침대에 누워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의식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저를 데려가주세요’라고 어리석은 기도를 하곤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가 아니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중보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일주일만에 산소호흡기를 떼고 죽음에서 삶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때 산소호흡기를 떼고 병원에서 물을 줬는데, 그 물이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살면서 그 전까지 물이 그렇게 맛있지는 몰랐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저는 그 때마다 그 물맛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시원한 물맛같은, 너무나 사소하고 소소한 일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행복이 있었다는 것을 그 시간들을 통해 배웠습니다.

붕대를 감고 있지만, 그것이 감염을 다 막아주는 것은 못했기 때문에 아침마다 굉장히 강한 진통제를 맞고 소독을 하기 위해 화상치료실에 가곤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고통으로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떠나 푸른 초장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만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한번은 제가 앉아서 제 다리를 봤습니다. 누워 있을 때는 몰랐는데 다리를 보니까 살색이라고 볼 뻔했던 부분이 없고 생닭에서 보던 빨강고 흐물흐

물한 살과 노란 지방덩어리와 뼈의 일부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난 살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을 먹이러 온 엄마한테 ‘이제 가망이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하자’고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있었던 중환자실에서 한달동안 16명이 환자분이 돌아가시는 것을 제가 밤마다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 였는데, 엄마는 ‘다시는 상처를 보지 않겠다고 약속하자’고 하시면서 밥을 제 입에 밀어 넣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에 살을 덮으시고 생기를 넣어 군대를 만드신 것처럼 이 밥이 지선의 삶이 되고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밥을 안먹겠습니까. 살려고 보니까 아픈 것 참는 것하고 밥 먹는 것 밖에 할 일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먹고 열심히 참았습니다.

‘이지선 파이팅’

제가 감사를 배운 것은 병원에 있을 때였습니



다.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엄마가 하루에 한 가지 감사할 것을 찾자고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모두를 원망하고 싶고, 사람들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고 계신 것이 아닐까?’ 하는 착각을 하고 있던 그 때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원망할 것 밖에 없어보였는데, 찾아보니 감사할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걸어서 화장실 간 것, 제 손으로 숟가락을 잡고 밥을 먹은 것, 살아 있어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등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제 입술과 제 마음에 진통제는 결코 줄 수 없었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 감사를 통해 그 상황마저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예전 사진 옆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만 해도 수술이 잘되면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화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후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식한 피부들이 면적이 줄어들어서 턱도 내려왔고, 입도 다물 수 없게 되고, 침을 흘리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거울을 볼 용기가 없어서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저는 제가 아니라고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했습

니다. 외계인 같았습니다. 저는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23살 여대생으로 살아가기엔 제 삶이 너무 많이 변했고, 돌아갈 수 없는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절망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절망이 가득 차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딱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하나는 아파트 옥상을 찾아 올라가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몇 시간을 고민하다 제가 엄마한테 교회에 가자고 했습니다. 한번은 따져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교회에 가서 불도 못 켜고 맨 앞자리에 앉으려서 기도 아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하실건가요? 살려주셨으면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나에게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나요?’ 몇 시간을 물었는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다음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남들이 볼까봐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흘러 내리는 침 때문에 수건을 갈아끼워 가면서 제가 함께 했던 성가대 앞에 앉아있었습니다. 다시는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초라한 제 인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찬양을 부르려고 싶지도 않았고, 목사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완주가 아니라 그냥 사진을 좀 찍기 위한 마라톤이었습니다. 당연히 연습도 안했습니다. 8km 걸어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사전에 버스를 타고 코스를 보는데, 42.195km라는 거리는 제가 뭘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교통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마라톤을 시작했습니다. 조금 뛰다가 힘들면 지하철을 탈 생각이었습니다. 뉴욕 마라톤 대회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4만 명의 마라토너들이 모여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양 길가에 나온 시민들이 계속 뛰라고 박수를 쳐 주셨는데 마냥 걷기가 민망해서 좀 뛰기도 하면서 제가 준비했던 8km 지점을 지나고, 절반을 지나고, 30km 지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힘들다고 바리케이트를 밀쳐내고 나가는 것도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걸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 너무 힘이 드는데 그만둘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인생을 마라톤과 같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그만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센트럴파크에서 ‘이지선 파이팅’이라고 써서 기다리시는 분을 만났



님의 설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제 곁에 오셨습니다. 저를 안아주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사랑하는 딸아’로 시작되는 기도였습니다. 저조차도 저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저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제 귀로, 마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 저를 위로하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 그리고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것이다.’ 저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성경 속의 그분이 살아계신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끝난 것 같은 제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에 제가 한 번 더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제 얼굴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커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제 모습마저 인정하고, 안아주고,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포기를 넘어 희망으로

벌써 4년 전이 되었는데, 제가 마라톤을 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 재단에서 마라톤을

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그분의 응원을 받고 나머지를 걸어갔는데 저도 모르게 다리가 쭉쭉 나갔습니다. 저도 인생의 마라톤에서 지쳐있는 누군가에게 힘내라고 외쳐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면서 7시간 22분의 기록으로 완주했습니다.

그날 제가 깨달은 것은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마라톤은 계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의 마라톤을 주셨습니다. 지금 얼마나 왔는지,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게 42.195km가 기적이었던 듯이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죽을 것 같은 고비들을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시지 모르겠습니다. 포기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하나님의 품 안으로 기쁘게 뛰어 들어가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고비도 포기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은 별 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이 자리가 끝이 아니라는 믿음인 것 같습니다. 14년 전에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오늘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로나온

책

New Books...

새해 책 많이 읽으세요!



하나님의 기쁨

존 파이퍼 지음|이상준 옮김
|두란노|420쪽|17,000원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성은 그가 사랑하
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

오늘날 많은 설교가들과 작가들이 “하나
님 중심으로 살라”고 외친다. 하지만 모순
되게도 이 외침은 우리 자신에게 초점이 맞
춰져 있다. 외침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만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인

가? 그것을 찾기 위한 항해를 시작하는 책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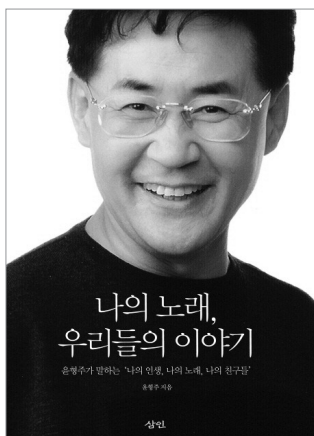
이 책은 우리를 위한 책이 아니다. 오직 하
나님을 위한 책이다. 독자들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망원경을 들고 성경적인 증거
들을 따라가며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을 조망하게 된다.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최고의 만족을 누릴 때라는 것을 발견한다.
그곳이 우리의 목적지다. 완전하고, 충만하
며, 자유로운 기쁨, 마르지 않는 샘물을 충족
히 마신 듯 상쾌하다.

사소한 미움, 쾌락, 물질 만능주의를 벗어
버린다. 인간적인 영성을 내려놓고,

오직 삼위일체 안에서, 창조 세계 안에서
누리는 만족과 기쁨을 알게 된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그분을 사랑
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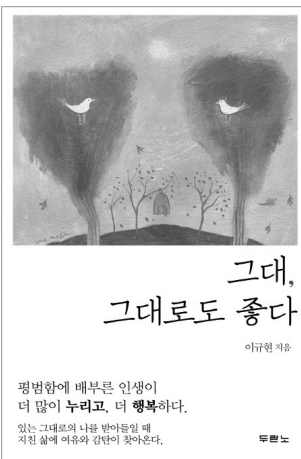


나의 노래, 우리들의 이야기

윤형주 지음|삼인
|311쪽|13,800원

나는 나의 인생을 사랑한다. 나의 노래를 사랑하고,
나의 노래를 사랑해 준 이들을 사랑한다.

내가 걸어 온 길을 사랑하고, 나의 가족들이 숨 쉬며
걷는 이 땅을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
시는 것처럼 내 자신을 사랑한다. 저자의 인생의 열
가지 풍경이 있다. 그리고 친구들의 이야기가 있다.



그대, 그대로도 좋다

이규현 지음|두란노
|240쪽|10,000원

이 책은 이 시대의 만족을 상실하고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허탈감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라고 말한다. 다른 이의
평가가 아닌 본인 스스로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
님 안에서 자신의 존귀함을 누리라고 제시한다. 저
자는 자신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통해 평범하지만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을 누리며 살길 권면한다.

가이오의 축복



서삼정 지음|두란노
|224쪽|10,000원

‘가이오’를 향한 하나님의 무
한하신 축복 메시지가 담겨있다.
이 책은 요한 사도가 가이오를
위해 기원한 축복을 중심으로 보
다 근본적이고 크신 하나님의 복
에 대해 말하는 책이다. 이 복은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다.
하나님의 복을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
하고 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전도서 강해



오스왈드 챔버스 지음
|스데반 황 옮김
|토기장이|296쪽|12,000원

전도서 강해는 오스왈드 챔버스
가 소천하기 2주 전까지 전쟁의 현
장에서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장병들에게 전한 마지막 설교
이자 이 땅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
이다. 죽음을 앞둔 챔버스에게 인생은 구속을 떠나서는 살 가
치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그래서 구속의 은총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은 결코 허무하지 않다.

내 인생 최고의 선택



김양재 지음|두란노
|220쪽|10,000원

김양재 목사의 룯기 큐티 이야
기를 담았다. 룯기 익숙한 모든
것을 버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룯1:16)’라는 선
택을 했듯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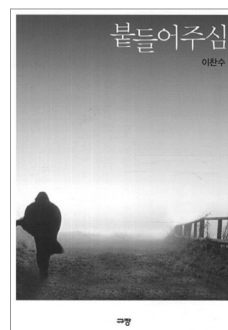
는 인생 최고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제시한다. 책은 사망의 길
과 생명의 길, 은혜의 길과 멸망의 길 이 두 개의 갈림길 가운
데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안식을 누리는 것이야
말로 최고의 선택이라고 말한다.



기도의 기적

이영훈 지음|두란노|268쪽|12,000원

궁금하지만 해결 받지 못했던 기도에 관한 모든 것이 이 책에 담겨
져 있다. 기도의 기본과 방법을 가르쳐준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상세히 설
명한다. 제대로 기도할 때 우리는 삶의 모든 문제를 내가 아닌 하나
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
들이 기도를 통해 경험한 살아있는 간증들이 나와 있다.



불들어주심

이찬수 지음|규장 |216쪽|11,000원

하나님은 우리가 흉년을 통해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하시지
만 우리는 그것을 싫어한다. 반항하며 궤도를 이탈해 실패와 몰락으
로 연결시켜버린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비참한 실패의 자
리, 실패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기 시작한다. 책은 ‘실패의 자리, 하나
님이 일하신다’, ‘회복의 자리, 하나님이 이끄신다’, ‘기쁨의 자리, 하
나님이 채우신다’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반전 은혜를 전한다.



영화속의 은혜

홍콩 허안화(許鞍華, Ann Hui) 여성 감독의 《A Simple Life》

심플라이프: 아주 특별한 사랑



심플라이프는 대가족 도전으로 자란 50대 영화감독 로저와 60년간 4대를 섬긴 가정부 아타오 사이에서 벌어진 감동적인 사랑이야기를 소재로 하였다. 이 영화는 2011년 9월 5일 베니스 영화제에서 처음 상영되었는데 제48회 대만 금마장(Golden Horse Award)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비롯한 3개 부문에서 상을 탔다. 2012년 3월 8일 중국에서 상영하였고, 2012년 제31회 홍콩 금상장(Hong Kong Film Awards) 영화제에서 최고작품상을 비롯한 5개 부문 상을 탔으며, 한국에서는 2013년 제5회 CJ중국영화제에서 주목을 받았다.

아타오와 로저

아타오는 고아로 자라 입양되었는데 양부는 일제 침략시기에 죽었고, 양모는 가난하여 13살인 그녀를 양씨 가문에 보내 60년간 가정부로서 대가족 4대를 섬기게 되었다. 아타오는 평생 남을 돌보는 사람으로 살았다. 그러나 그녀는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더 이상 가정부로 일할 수 없어 사표를 낸다.

50대 독신인 로저는 20살에서 30살까지

미국에서 유학한 영화감독으로 무려 40년 동안이나 아타오와 함께 생활하였다. 어느 날 아타오가 쓰러지자 로저는 충격을 받고 섬김을 받기만 했던 로저가 손수 죽을 끓여 그녀에게 갖다 주고, 세탁기 한번 돌리지 않았던 로저가 집안일을 하면서 그녀를 돌봐 주었다. 아타오는 남에게 부담스런 존재가 되기 싫어 요양원에 가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고통 받는 사람들을 보며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서서히 적응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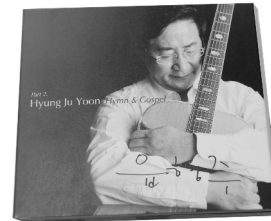
로저는 아타오를 진심으로 양어머니로 대해주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주 요양원에 와서 그녀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였다. 평소 외모를 가꾸지 않았던 아타오가 예쁘게 화장하고 이꼴던 옷을 꺼내 입고 로저가 초청한 영화 시사회에 참석하였다. 로저는 사람들에게 아타오를 자신의 양어머니라고 자랑하고 시사회가 끝난 후에 두 사람이 손잡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뒷모습은 훈훈한 정을 자아냈다. 아타오와 로저의 관계는 유모와 도전님의 관계에서 시작되어 양어머니와 양아들의 관계로 변화하여 진한 감동을 선사하였다.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처럼.

이별 연습

아타오가 폐기종과 중풍이 재발되어 가망이 없다고 하자 로저는 약물을 적게 투여할 것을 결정하고 차분하게 그녀와의 이별을 준비하였다. 중국으로 출장을 가야하는 상황이라 자신이 없는 사이에 아타오가 돌아가시면 영안실에 안치시켜 달라고 의사에게 부탁까지했다. 하지만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고 임종을 지키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다. 장례식에 참가한 요양원 사람들은 아타오의 죽음을 일상처럼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다.

영화 제목이 'Simple Life' 인 것처럼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상실을 경험하게 되고 죽음으로 여정을 마치게 된다. 우리는 언제든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미련 없이 떠날 준비도 필요하다. 죽음은 인간의 한계지만 겸손하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따라 후회 없이 살자. 그리고 기쁘게 하나님 품에 안길 날을 기대하자.

/ 김 선 객원기자

MUSIC
내 마음의 찬양

Hymn & Gospel Part 1, Part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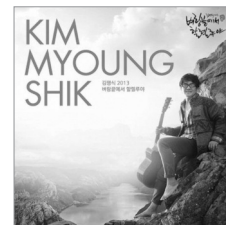
찬양은 나의 호흡이요,
찬양은 신앙의 증거이며, 내가 살아있는 이유
라고 고백하는 세시봉 윤희주의 찬양시리즈



컴패션 2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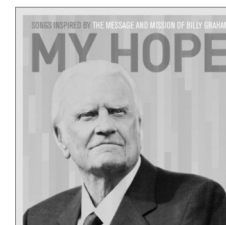
컴패션 밴드 2집 앨범 '그의 열매가 나왔다. 컴패션이 세워진 지 10주년 되었음을 기념하고 사랑의 씨앗이 현재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을 감사하며 나온 앨범이다. 판매 수익금은 전액 한국컴패션에 기부되어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된다.

김명식 2013 벼랑 끝에서 할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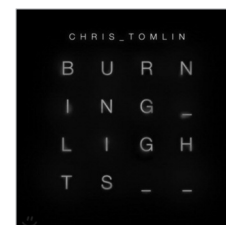
앨범의 모든 트랙을 후배 아티스트들과의 콜라보레이션으로 꾸며졌다. 헤리티지, 장운영, 민호기, 천관용, 강찬 등의 중견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했을 뿐 아니라 Cross KC, 배지완, 강성훈, 주리 등의 젊은 아티스트들과도 함께 작업하며 절묘한 조화를 이루었다.

MY HOPE



빌리그래함 프로젝트로 나온 앨범. 그가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 선포와 같이 힘 있는 음악들로 채워졌다. 베테랑과 신예, CCM과 위십, 팝과 락 등 장르와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참여했다.

Chris Tomlin-Burning Lights(DVD+CD)



크리스탈린의 새로운 개인앨범 Burning Lights는 새로운 아티스트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시도와 신선함을 더했다. 화려함보다 깊은 예배,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예배로 인도한다.

2014 신년특집 - 온누리교회와 일본

러브소나타가 ‘바람’ 이라면 CGNTV는 ‘햇볕’



그곳에는 ‘설렘’이 있다. ‘기대’와 ‘감동’도 있다. 필자에게 러브소나타에 대해 묻는다면 곧바로 떠올리게 되는 단어이다. 러브소나타가 ‘바람’이라면 CGNTV는 ‘햇볕’이다. 즉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러브소나타가 일본교회에 ‘우리(일본 기독교인들)도 (문화 전도집회) 할 수 있다’ ‘교단 교파의 벽을 넘어 설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일본 열도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킨 단조를 제공했다면 CGNTV는 ‘일본교회(목회자와 교인)는 외롭지 않다’ ‘한국인과 일본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확신과 국경을 초월한 끈끈한 연대감을 심어줬다.

이는 지난 5월 오키나와, 11월 군마에서 각각 열린 러브소나타에서도 그대로 증명됐다. 오키나와 컨벤션센터와 군마 베이시아문화홀을 찾은 일본인들의 모습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 러브소나타를 통해 2000여개 일본교회와 협력이 이뤄졌다. 일본인 참가자는 5만6000여명에 달했다. 그중 결신자는 2600여명에 이르렀다. 2006년 10월 개국한 일본 CGNTV는 러브소나타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촉매제, 파이프라인 역할을 했다. 개국 5년 만에 일본 47개도현에서 1600여개 교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일본선교역사에 기록될만한 큰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듣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일본 향한 멈출 수 없는 도전, 교회 설립과 더불어 시작’

처음엔 ‘일본에서 대형집회가 가능하겠는가’ ‘연합사역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회의도 있었다. ‘격세지감’. 일본 목회자들은 물론 일본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선교사들조차 비판적이었던 러브소나타의 초창기를 기억하는 필자로서는 고 하용조 목사의 열정과 헌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도전정신에 고개가 숙여진다.

일본과 일본인을 향한 하 목사의 사랑은 러브소나타 이전부터 남달랐다. 교회 창립에 배를 드린 3개월 뒤인 1986년 1월 5일에 변재창 선교사를 일본에 파송했다. 1994년엔 2천/1만 비전 선포와 더불어 조성록 장로를 첫 장로 선교사로 파송했다. 하 목사의 안식년과 일본 선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1차 안식년

을 떠난 뒤 일본 어린이들을 위한 토요학교와 일본어예배가 시작됐고, 간암 수술에 따른 2차 안식년 기간 중 도쿄와 우에다 등지에 비전교회가 속속 세워졌다.

하 목사가 2002년 일본 하코네에서 가진 ‘일본온누리공동체수련회’에서 선포한 비전이 지금도 또렷하게 귓가에 맴돈다. “저는 일본교회가 일어나 걷고 뛰는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일본 사회를 뒤집을 것을 믿습니다. 일본의 수많은 파진코 네오사인 불빛이 모두 십자가의 붉은 빛으로 바뀔 것입니다. 일본교회에 부흥이 일 어날 것입니다.”

이때의 비전이 보다 구체화된 것이 일본 CGNTV 개국과 함께 ‘오키나와에서 샷포르까지’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시작된 러브소나타다. 앞서 언급했듯이 당시 온누리교회는 일본을 위한 사랑행전을 써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축적된 상태였다. 하 목사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일본에서 머물고 있을 때 ‘일본을 선교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1주일 세 번씩 투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본 선교에 직접 뛰어드는 것은 만만치 않은 도전이었다.

문화적 접근과 차세대 전도라는 목표를 세우고 한류 기독교인스타들을 러브소나타 대열에 합류시켰다. 2006년 일본CGNTV를 설립하고 24시간 일본어방송을 선포하며 러브소나타가 일본에서 연달아 이뤄질 수 있는 네트워크를 완성하도록 노력했다. 두란노서원은 러브소나타를 위해 중요한 서적들을 일본어로 번역했다.

마침내 2007년 3월 오키나와에서 시작된 러브소나타는 교회의 적장은 재정과 인원이 동원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도 멈추지 않고 일본 열도에서 19차례나 이어지며 일본교회의 신뢰를 얻었다. 하 목사가 소천한 뒤 러브소나타와 일본CGNTV가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일부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음을 증명해냈다. 일본 목회자들은 일본교회를 위한 한국교회의 멈출 수 없는 사랑행전으로 러브소나타와 일본CGNTV를 폭넓게,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됐다. ‘프렌드(Friend)’에서 ‘패밀리(Family)’가 되는 순간이었다. 필자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러브소나타를 계속 하는 게 필요하겠느냐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온누리교회



일각에서 나온다고 들었다.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다. “러브소나타와 CGNTV의 아웃리치에 일단 참석해보십시오. 그러면 일본교회 목회자와 교인들이 더 좋아하는 러브소나타와 CGNTV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러브소나타는 일본 내 비기독교인들의 높은 참가율을 통해 새로운 전도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비기독교인의 교회와 크리스천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일으켰다. 단기간에 일본 지역교회 간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교회를 통한 한일 화해 분위기 조성은 연합선교의 패러다임을 구축한 것은 놀랄만한 성과다.

‘어떤 것도 일본 향한 온누리교회의 사랑을 꺾을 수 없다’

2013년 오키나와와 군마에서 펼쳐진 러브소나타에는 색다른 의미가 있었다. 오키나와에서 시작된 러브소나타가 주요 지역을 돌아 다시 오키나와에서 이뤄졌다는 점과 러브소나타 일본실행위원회가 더욱 간절히 러브소나타 유치를 고대했다는 것이다.

이번 두 차례 러브소나타에서 또 잊을 수 없는 것을 꼽으라면 이재훈 목사의 메시지다. 이 목사는 오키나와와 군마에서 각각 일본인에 맞는 감성터치 메시지를 담아냈다.

오키나와에서 선포된 메시지 도입부분이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법 전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립국회도서관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확신에 입각하여...설립한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천년 전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목사는 국립국회도서관법 전문이 성경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언급을 통해 러브소나타에 참석한 일본인들에게 복음이 결코 낮은 게 아니라는 것을 제시해나갔다.

군마러브소나타에는 CGNTV 운영위원들도 참여했다. 러브소나타 행사에 앞서 운영위원들은 일본교회와 일본학교를 방문, 일본 크리스천들의 저력을 느끼는 아웃리치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거의 빠짐없이 러브소나타에 참석해온 정상건 운영위원장님 부부, 지성한 장로님 부부, 이용만 장로님을 비롯해 20명의 운영위원들은 뉴라이프그리스도교회, 시부카와 그리스도교회, 아카호중앙교회 등 일본교회 3곳을 방문해 CGNTV 위성안테나를 달아주고 일본교회의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러브소나타가 비기독교인들도 부담 없이 참석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한국과 일본, 일본 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크리스천들이 하나로 묶여지는 ‘끈’이라는 데에 다른 토를 달 분이 없어 보인다. 2014년 러브소나타가 벌써 기다려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 CGNTV 함태경 경영본부장



업그레이드 된 2014 선교헌금

‘헌금’ 과 ‘기도’ 로 동참하세요

온누리교회는 매년 첫째 주와 둘째 주 주일에 선교헌금 작정을 한다. 이는 ‘선교’ 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되새기며 올 한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다는 고백이고 다짐이다.

올해 선교헌금 작정은 업그레이드됐다. 헌금 작정뿐만 아니라 중보기도와 재능기부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선택사항을 추가했다. 중보기도는 성도들의 온누리 선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온누리 파송선교사가 있는 7개 지역(동아시아, 남아시아, 유라시아, 중동, 아프리카, 미주-오세아니아, 국내 및 본부)이 소개된 선교헌금 작정안내 책자가 지난주부터 배포되고 있다.

내용을 숙지하고 중보기도하기 원

하는 지역과 선교사를 작성서 선택사항에 체크하면, 매달 중보기도제목과 선교지 소식을 받을 수 있다. 재능기부는 기도편지 관리, 우편발송 등 몸소 봉사하며 선교에 동참할 수 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선교사 후원사역부가 새롭게 개설됐다.

선교지 소식뿐만 아니라 선교사의 숨어있는 스토리를 전하며 성도들과 선교지의 간격을 좁히고 선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기도로 후원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14년도 선교헌금은 온누리 선교의 질적 성장을 위한 기반조성에 초점이 맞춰진다. 선교헌금이 사용될 신규 사역에 대해 소개한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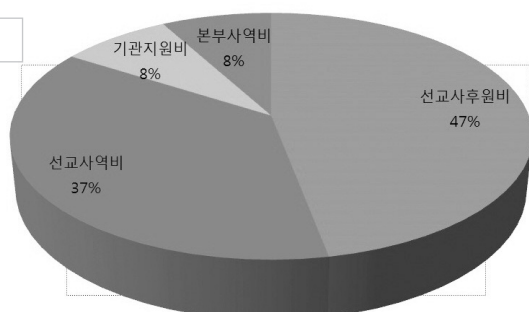
2014 신규사역 소개

사역	소개
인터넷 신학교 (All nations Bible College)	-현지 지도자 대상으로 On/Off line 교육 실시 -학부과정 -양지 Acts29 Vision Village 내 위치함
글로벌 리더십 장학금	-현장 선교사 중 미래 리더십 대상으로 학비와 후원비 지급 -기존 온누리선교장학금 (하용조 장학금) 유지
동아시아 A국 선교훈련	-기존의 Vitamin C 세미나 지속 -현지인 선교 헌신자 대상 선교훈련 주변국으로 파송
정보전략연구소	-15개 입양 미전도종족 사역 평가 -온누리 창립 30주년 맞이하여 추가 입양종족 연구 및 분석 -선교백서 작업 -양지 Acts29 Vision Village 내 위치
선교사 케어상담센터	-선교사 영적, 심리적, 신체적 상태점검 및 케어 -선교사 위기관리 교육 및 후속 상담 -양지 Acts29 Vision Village 내 위치
선교사 국민연금 가입 지원	-모든 파송 선교사 국민연금 가입 의무화 -교회에서 국민연금 50%지원 -선교사의 은퇴 및 노후복지에 활용
한국선교 협력을 위한 후원	-선교한국(Mission Korea) 후원교회로 지원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지역 컨설테이션 대회 지원 등

2013년 선교헌금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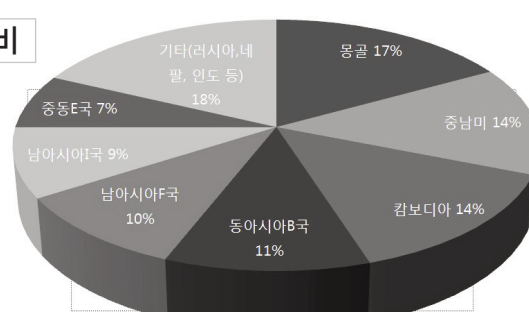
2013년도에는 2만 6천명의 온누리 성도들이 선교헌금에 동참했다. 25개국에 105명의 신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인도네시아, 네팔, 스리랑카 등지에 선교베이스를 구축하고 확장했다. 또한 블레싱 한반도를 통해 복음 통일을 준비했다. 이 외에도 71개국에서 사역중인 선교사들의 선교사역에 귀한 통로로 사용되었다.

2013선교헌금



선교사 후원비는 장·단기 선교사 후원과 협력 선교사, 선교사 자녀 장학금 등으로, 선교사역비는 선교지 교회개척, 프로젝트, 공출사역, 교육사역 등으로 사용되었다. 기관지원비는 온누리교회 대내외 협력 선교기관 후원 등으로, 본부사역비는 선교스쿨, 동원사역, 국내행정 및 캠퍼스 선교지원 등으로 쓰여졌다.

나라별 해외선교사역비



나라별 해외선교사역비는 몽골에서는 Acts29미니스트리(현지리더들을 통한 교회개척)사역 등에, 중남미에서는 미전도종족 교회지원과 기독교 운영 등에, 캄보디아에서는 문화센터 및 유치원 운영 및 북 카페 및 교회사역 지원 등으로 사용되었다. 동아시아B국은 유치원, 산지 미전도 종족 마을방문전도, 현지인사역자훈련, 청소년제자훈련 등에 쓰였다. 이 외에도 신학교 및 교회 개척사역, 교사원사역, 스포츠사역, 시리아난민대상 구제구호사역, 선교 베이스 구축 등에 사용됐다.



온누리교회와 12개 협력기관들이 함께 모여 시무예배를 드리고 2014년을 힘차게 출발했다.

“내게는 진리, 타인에게는 은혜”

온누리교회 · 12개 협력기관 시무예배

온누리교회와 12개 협력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시무예배를 드리고 2014년을 힘차게 출발했다.

지난 3일 서빙고 캠퍼스 본당. 온누리교회를 비롯한 12개 협력기관(온누리교회, 선교재단, 복지재단, CGNTV, 두란노, 아버지학교, 두란노 해외선교회, 에셀선교회, Acts29 비전빌리지, 경배와 찬양, KiBi,

NGO 더 멋진 세상)이 함께 모여 동역의 기쁨을 만끽했다.

2014년 시무예배는 기관별 소개영상 상영에 이어 구호제창 및 특순, 이재훈 목사 메시지,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시무예배의 하이라이트는 기관별 구호제창과 특순이었다. 각 기관에서 2014년 온누리교회 슬로건인 ‘은혜와 진리’를

주제로 준비한 구호제창과 특별공연을 선보일 때마다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특히 CGNTV 직원들이 선보인 프랜시스찬 목사와 정재륜 목사 패러디와 복지재단 직원들의 준비한 율동이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이날 이재훈 목사는 온누리교회와 협력기관 동역자들에게 “자신에게는 진리를, 타인에게는 은혜를 베푸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CGN 청춘선교단 은빛날개’ 멘토 위촉

시니어 선교 관련 정보 제공

CGNTV가 시니어 선교캠페인 일환으로 제작중인 프로그램 ‘CGN 청춘선교단 은빛날개’의 멘토로 이훈 목사(온누리교회), 유해근 목사(나섬교회), 느헤미야 선교사(시니어한국), 정의주 집사(남서울은혜교회)가 위촉됐다.

‘CGN 청춘선교단 은빛날개’는 인생의 후반기를 하나님께 헌신할 시니어 선교단원을 모집해 선교훈련과 아웃리치를 통해 경험과 연륜을 갖춘 시니어 세대가 선교현장으로

나오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멘토들은 시니어 선교단원 선발 및 훈련 과정에 참여해 시니어 선교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CGNTV를 유럽, 중동,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시청 가능한 주파수가 변경되었다. 해당지역 시청자들은 원활한 시청을 위해 1월 31일까지 셋톱박스의 TP주파수를 12380으로 변경해야 한다.

문의: 02)796-1118



‘CGN청춘선교단 은빛날개’의 멘토단.

단 동

2013 장로장립식

지난달 18일 단동 온누리교회 정길안 장로 장로장립식이 있었다.

이날 장로장립식에는 강부호 목사(북경 온누리교회), 허원희 목사(Acts29), 이석일 장로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길안 장로는 “단동 온누리교회가 중국과 북한선교를 잇는 교두보가 되도록 힘써 섬길 것”을 다짐했다.

한편 오사카 온누리교회에서도 지난달 6일 일본인 5명, 한국인 6명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임직되었다.

해외 온누리비전교회 이취임

12월 29일 밴쿠버 온누리교회 이임: 안광복 목사 취임: 이한규 목사
1월 5일 노스캐나다 온누리교회 이임: 이기진 목사 취임: 윤길중 목사
1월 12일 호치민 온누리교회 이임: 이종훈 목사 취임: 박영근 목사
1월 15일 청도 온누리교회 이임: 노치형 목사 취임: 최승구 목사
1월 17일 단동 온누리교회 이임: 손신국 목사 취임: 박시형 목사
1월 19일 샌디에고 온누리교회 이임: 김성원 목사 취임: 금정연 목사

더 멋진 세상, ‘세네갈 지부’ 설립 허가

일 년여 만에 이룬 쾌거

NGO 더 멋진 세상 세네갈 지부 설립 허가를 받았다.

지난달 31일 세네갈 내무부령으로 온누리교회 소속 NGO 더 멋진 세상 세네갈 지부 설립 허가를 받았다. 일

년여 기다림 끝에 이룬 쾌거다.

그 동안 NGO 더 멋진 세상은 세네갈 본나바 마을에서 어린이 생명 살리기, 우물공사, 의료지원 사업 등을 활발하게 진행해왔다. 올해에는 상

수도 건설과 학교 신축을 목표로 교육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네갈은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남진을 저지하기 위한 선교 전략적 요충지로 NGO 더 멋진 세상이 임업한 서부 아프리카 나라 중 하나다.

아버지학교 2014 비전나이트

1월 11일 양재... ‘다시 첫 마음으로’

아버지학교가 다시 첫 마음으로 돌아간다.

아버지학교는 2014년 슬로건을 ‘다시 첫 마음으로’ 정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학교를 세운 첫 마음을 기억하며 한 해를 보내기로 다짐했다. 그 시작은 오는 11일 양재햇불센터에서 열리는 아버지학교와 어머니학교가 함께하는 2014 비전나이트 행사가 장식한다.

순수한, 겸손한, 간절한,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이해달 부상임이사의 대표기도, 구호제창, 이재훈 목사의 메시지, 비전선포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전에는 어머니학교는 리더십축제를, 아버지학교는 지부장 대회를 연다.

문의: 02-2182-9114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 참가자 모집

자신의 은사와 전문성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선교사를 훈련하는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추천서 각 1부를 내려 받은 뒤 작성해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인터뷰는 개별안내 한다. 훈련비용은 50만 원이다.

훈련은 1학기는 3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2학기는 8월 30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진행된다. 7~8월 중에는 현장 아웃리치가, 학기 중 4회에 걸쳐 1박2일동안 공동체 훈련이 실시된다.

이메일: opmstimg@gmail.com

문의: 070-4464-8110

강 동

하 나 님 의 러브레터가 발송되었습니다

유치부 전도집회
지역주민 초청, 송년콘서트



춥고 쌀쌀한 겨울의 어느 날, 강동 온누리교회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따스한 파티를 열었다. 이름하여 ‘전도집회 예뼌 러브레터’. 이날 파티는 강동 차세대 예수님의 꿈아이(이하 예꿈) 주최로 진행되었다. 행사가 열린 지난 12월 14일(토) 오후 5시 강동 온누리교회 카페에는 성탄절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데코레이션과 챔버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연주가 울려 퍼졌다. 아름답게 꾸며진 카페에 삼삼오오 모인 참석자들은 저녁식사와 함께 담소를 나눴다.

재능기부로 꾸며진 공연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즐기며 율한해 힘들었던 것들을 풀기 바랍니다.”

이덕주 전도사(강동 예꿈 담당)가 공연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말했다.

이날 준비된 공연은 ▷김세일 성가사의 솔로 ▷혼성 중창 ▷비올라 솔로연주 ▷비올라, 어쿠스틱 기타 협연 ▷애니메이션(스토리박스) 상영 ▷예꿈의 성경동화 뮤지컬 등 2시간여 동안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 이 모든 순서들은 강동 온누리 교인들의 재능기부로 마련되었다.

복음의 메시지가 담긴 애니메이션은 참석한 어린 아이들의 눈길을 붙잡았고,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은 유치부 아이들이 공연해 참석자들의 큰 환영을 받았다. 행사가 끝난 후 한 초청대상자는 아이들의 공

연을 본 후 “우리 아이도 교회에 보내서 예배드리고 율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대상자들도 즐거웠던 공연

이날 전도집회에는 초청대상자와 강동 유치부 부모 등 80여 명이 참석해 사이닝 글로

은 다니지 않는 아이, 나비쇼핑몰 상인의 자녀를 초대하는 등 초청받은 대상자들은 각각 각색이었다.

담당 교역자의 전화를 받고 참석하게 되었다는 김윤혜(초청대상자 가정) 씨는 전도집회에 왔다가 고등학교 동창을 다시 만났다. 그녀는 “시간에 맞춰 오지 못해 아쉬웠지만 모든 시간들을 즐겁게 보내다 간다”며 “특히 교회

에도 이런 행사가 있다면 아이와 함께 참석하고 싶다”고 전했다.

지역사회 섬기는 강동 온누리

사전에 강동 온누리교회는 초청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금홀미라는 이름의 쌀 10kg을 배달했고, 함께 행사 초청 메시지도 전달했다.

예꿈 러브레터의 목적은 지역사회의 미취학 아동 가정에 교회의 선한 영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는 것에 있다. 집회의 초청대상자가 지역내 4~7세 자녀를 보유한 저소득층 가정이었으며, 천호3동 주민센터와 연계해 10가정을 추천받았다. 뿐만 아니라 이날 행사는 강동 유치부 교사의 가정과 자녀들도 자리에 함께해 섬김으로 구제 사역에 대한 의식도 고찰하는 시간이 되었다.

예꿈 러브레터 전도집회도 강동 온누리교회가 수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는 48M(Miracle, 48만원의 기적)의 일환이다. 이번 집회는 자선 및 송년 콘서트로 진행되었고, 식사 제공과 함께 유치부 관계자들의 재능기부로 공연이 준비되었다.

강동은 올해 성탄에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송년 콘서트 및 전도집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과 사회를 돌보는 일에도 손수 앞장서고 있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리(카페)를 가득 메웠다. 친언니가 동생 가정을 초청하거나, 과거 교회에 출석했지만 지금

에 다니는 기타치는 친구를 이 전도집회의 공연에서 보니 기뻐다”고 말했다. 덧붙여 “다음

“공연 보고 종교 바뀌어야겠다 생각해”

저는 종교가 천주교이지만 동사무소를 통해 오늘 집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큰 모임보다는 작은 집단으로 돌봄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종교를 바꾸어볼까 합니다. 저희 아이가 유치원생이라 그런지 유치부 아이들이 공연하는 것을 보니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아이들과 의견을 나누어 보고 아이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아까 기도할 때 작은 아이가 손을 올리고 기도하고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진(어머니)

저는 노래가 가장 좋았어요. 아이들이 노래를 잘한 것 같아서요. 다음에 이런 시간이 또 있다면 그때에도 오고 싶어요.

/ 박유민(딸)

유치원 아이들이 공연하는 게 신기했어요. 그게 좋았어요. 다음에도 올래요. / 박영민(아들)

